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입력 훈련

고3 · 독서 28지문 · 2주 · 하루 두 지문

읽는다

천천히, 문단마다 멈춰서

덮는다

다시 펴 보지 않고

꺼낸다

말하고 · 쓰고 · OX로 확인

국어는 제시문을 읽을 때 90%를 입력해서,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제일 잘 하는 사람이다.

— 이지영 선생님 (이지영 Official 「국어 잘 보는 법」)

HOW TO USE

이 책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비문학이 무너지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찾으려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에서 해당 부분을 찾고, 다음 문제에서 또 찾습니다. 지문 하나를 네다섯 번 읽지만 글 전체는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잘하는 학생은 처음 한 번 읽을 때 글의 뼈대를 머리에 넣고, 지문은 **확인할 때만** 봅니다. 차이는 머리가 아니라 읽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입력은 읽는 동안이 아니라 **덮고 꺼내 볼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이 책은 그 꺼내기를 매일 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1 하루 40분, 이 순서로

지문 하나 = 20분

STEP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이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8~10분

STEP 2

덮고 말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설명. 막힌 곳이 곧 입력 안 된 곳.

3분

STEP 3

뼈대 쓰기

문단 순서대로 핵심을 한 줄씩 백지에.

3분

STEP 4

덮은 채 OX

지문을 펴지 않고 5문항. 기억으로만 판단.

2분

STEP 5

펴서 대조

빠뜨린 문단·틀린 OX에 표시. 답지로 확인.

3분

2 같은 지문을 세 번 만난다

새 지문보다 「끝까지 꺼내 본 경험」이 먼저

DAY n

1~5단계 전부



3일 뒤

2~4단계만 · 덮은 채로



7일 뒤

3분 안에 뼈대가 다 나오면 통과

3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

「뼈대」 칸 기준

꺼낸 문단	상태	다음 행동
전체의 80% 이상	입력 완료	다음 지문으로. 3일 뒤 복습만 지킨다.
50~80%	부분 입력	막힌 문단의 첫 문장과 연결어 (그러나·한편·따라서)를 다시 읽고 그 문단만 덮고 말하기.
50% 미만	읽기 속도 과다	다음 지문은 STEP 1 을 12분으로 늘린다. 문단마다 반드시 멈춘다.

읽는 동안에는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덮고 꺼내 봐야 몇 %가 들어갔는지 보입니다. 처음에는 절반도 못 꺼냅니다. 정상입니다.

— 공부코치

STUDY LOG

2주 학습 기록표

매일 두 지문을 마치면 한 줄씩 채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2주를 버티게 합니다.

DAY	지문 1	지문 2	날짜 · 시간	빠대	OX	3일 뒤	7일 뒤
01	인문·철학	기술·건축		/ 15	/ 10	☐	☐
02	사회·정치	과학·기술		/ 12	/ 10	☐	☐
03	인문·정보	기술·공학		/ 9	/ 10	☐	☐
04	인문·철학	기술		/ 13	/ 10	☐	☐
05	사회·법	과학		/ 10	/ 10	☐	☐
06	예술·영화	과학·생명		/ 11	/ 10	☐	☐
07	사회·언론	기술·광학		/ 8	/ 10	☐	☐
08	인문·미학	과학		/ 15	/ 10	☐	☐
09	사회·법	기술·공학		/ 12	/ 10	☐	☐
10	사회·법	기술·전기		/ 12	/ 10	☐	☐
11	인문·철학	인문·철학		/ 14	/ 10	☐	☐
12	인문·역사	사회·경제		/ 14	/ 10	☐	☐
13	사회·사회학	사회·경제		/ 15	/ 10	☐	☐
14	인문·윤리	사회·경영		/ 11	/ 10	☐	☐

DAY 01

지문 1 / 2

인문·철학

2025년 5월 고3 학력평가 4~9면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이성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성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들이 말하는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으로 집약한다. 그가 말하는 표상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이다. 가령 ‘빨창고 동그란 과일’을 보고 ‘사과’로 인식한 두뇌 작용이 표상이다. 이러한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따른다. 충분 근거율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등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충분 근거율에 입각한 표상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인식된 세계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고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표상된 것일 뿐이며,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단순히 두뇌 작용으로 경험하는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는 무엇일까? 그는 ‘의지’라고 단언한다. 그가 말하는 의지란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자 욕망으로, 실제 그 자체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무엇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이다. 이때 ‘의지가 객관화된다.’라는 표현은 의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자갈’이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중력과 같은 자연력에서부터 무기물, 식물, 동물, 나아가 인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의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임을 밝힘으로써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표상으로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나)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정신의 산물로 보고, 모든 실체는 정신적인 것으로 구성되었거나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연주의자들은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하며, 모든 실체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학자 가브리엘은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실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신실재론을 제안한다.

신실재론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실재하는 대상으로 보며, 모든 대상은 각각 어떠한 하나의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이때 대상 영역은 포함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을 가지며, 그 법칙은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 이러한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담은 정황인 사실도 포함된다. 가령, 한 알의 사과와 과일 접시가 있는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접시’와 ‘사과’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 영역의 대상이며, ‘접시 위에 사과가 놓여 있다.’라는 시공간적 정황은 이 대상 영역의 사실이다.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며, 사실이 참일 때 진리라고 말한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의미장을 통해 세계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미장이란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으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내 손은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에 나타나지만, 내 손을 글로 묘사했다면 그 글이라는 의미장에도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내 꿈이나 오해라는 의미장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손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재이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한다고 곧 참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는 의미장이 최소한 두 개 이상 존재해야 실재에 대해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며,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관념론자나 자연주의자들이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이나 자연이라는 실체가 진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미장과 동등한 또 다른 의미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들은 다른 의미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으로는 실재에 대한 진리 여부, 즉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된다.

신실재론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 세계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진리 하나를 던져 준다. 그것은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DAY 01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는 충분 근거에 따르므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2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가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라고 보았다.	☐	☐
3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표상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4	가브리엘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진리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뿐이다.	☐	☐
5	가브리엘은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하면 곧 참이라고 보았다.	☐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1 지문 2 / 2

기술·건축

2025년 5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건물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건물에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인 진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건물의 진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그중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건물의 진동 크기에 따른 제진에 효율적이다. 자기 유변 유체는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이다. 이 유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하여 자기장을 생성함으로써 건물의 진동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쇠기에서 응답 인식 과정과 감쇠 제어 과정을 순환하며 이루어진다.

응답 인식 과정은 건물에 외부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건물의 진동 상태를 가속도의 크기로 산출하는 과정이다.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움직이면, 먼저 가속도 감지기 내부에서는 특정 질량을 가진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다. 이렇게 힘을 받은 압전소자에서는 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자체 전원을 지닌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 수신한다. 이후 제어기는 수신한 전압의 값을 토대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한다.

감쇠 제어 과정은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건물의 운동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건물의 진동을 줄이는 과정이다. 감쇠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들어 있는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실린더 내부 벽면에 밀착하여 실린더 양쪽 끝을 왕복하며 이동하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장치이다. 이 피스톤에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건물이 진동하면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실린더 끝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린더 공간에 들어 있는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 피스톤의 구멍을 통과하여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 실린더 공간으로 이동하며 마찰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감쇠가 일어난다.

만약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크면, 제어기에서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을 생성하여 감쇠기의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진다. 이때 전류의 크기와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하며, 유체의 점성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로 인해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감쇠기의 감쇠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후 응답 인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하여 그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제어기는 감쇠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 감쇠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쇠시킨다.

이러한 과정들을 순환하며 작동되는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일상의 작은 진동부터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까지 건물의 진동 상태에 맞게 제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DAY 01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자기 유변 유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점성이 작아진다.	O	X
2	가속도 감지기의 질량체는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다.	O	X
3	압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은 매우 커서 제어기가 이를 줄여서 수신한다.	O	X
4	감쇠기에서는 유체가 피스톤의 구멍을 통과하며 일으킨 마찰로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O	X
5	가속도 크기가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제어기는 전류를 보내지 않고, 감쇠기는 유체의 기존 점성만으로 진동을 감쇠시킨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1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표상·의지와 신실재론

2025년 5월 고3 학력평가 4~9번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으로 보았고, 가브리엘은 다양한 의미장이 공존한다는 신실재론으로 하나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상 → 의지 → 객관화 → 의미장 → 신실재론

- (가)① 이성으로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성주의에 쇼펜하우어가 반대함
 (가)②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따른 표상일 뿐, 두뇌 작용의 환영임
 (가)③ 실재 세계는 맹목적인 힘인 의지이며, 이성으로 설명·포착할 수 없음
 (가)④ 표상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것으로, 모든 사물은 의지와 연결됨
 (가)⑤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표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함
 (나)① 관념론·자연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브리엘이 신실재론을 제안함
 (나)② 모든 대상은 대상 영역에 속하며, 진위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임
 (나)③ 대상은 의미장에 나타나며, 의미장이 둘 이상이어야 참·거짓을 밝힘
 (나)④ 하나의 의미장만 인정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1 X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므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2 O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가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라고 보았다.
 →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이며 의지와 '근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3 X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표상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표상으로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함.
 4 O 가브리엘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진리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뿐이다.
 →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며, 사실이 참일 때 진리'.
 5 X 가브리엘은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하면 곧 참이라고 보았다.
 →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한다고 곧 참은 아니'며, 의미장이 최소 두 개 이상 있어야 참·거짓을 밝힐 수 있음.

지문 2 자기 유변 유체 제진

2025년 5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응답 인식 과정과 감쇠 제어 과정을 순환하며 건물의 진동 크기에 맞게 진동을 줄인다.

진동 → 가속도 산출 → 자기장 → 점성 증가 → 감쇠

- ① 자기 유변 유체는 자기장이 생기면 자성 입자가 배열되어 점성이 커짐
 ② 이 시스템은 가속도를 측정해 자기장을 만들며 두 과정을 순환함
 ③ 응답 인식: 압전소자의 전압을 제어기가 증폭·수신해 가속도 크기를 산출
 ④ 감쇠 제어: 유체가 피스톤 구멍을 지나며 마찰로 운동 에너지를 열로 전환
 ⑤ 가속도가 기준값보다 크면 전류로 자기장을 만들어 점성·감쇠력을 키움
 ⑥ 두 과정의 순환으로 작은 진동부터 큰 진동까지 상태에 맞게 제진함

- 1 X 자기 유변 유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점성이 작아진다.
 →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배열되면서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음.
 2 O 가속도 감지기의 질량체는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다.
 →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전소자에 힘을 가한다.'
 3 X 압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은 매우 커서 제어기가 이를 줄여서 수신한다.
 →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 왜곡이 일어나기 쉬워' 제어기가 '증폭시켜 수신한다.'
 4 O 감쇠기에서는 유체가 피스톤의 구멍을 통과하며 일으킨 마찰로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 유체가 '피스톤의 구멍을 통과'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
 5 O 가속도 크기가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제어기는 전류를 보내지 않고, 감쇠기는 유체의 기존 점성만으로 진동을 감쇠시킨다.
 →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전류를 보내지 않아' 감쇠기는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감쇠시킴.

DAY 02

지문 1 / 2

사회·정치

2025년 6월 고3 모의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이던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라도 임차인에게서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DAY 02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이 글은 8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하여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 O | X |
| 2 |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는 법이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다. | O | X |
| 3 | 세 가지 법 모델은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왔다. | O | X |
| 4 |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 O | X |
| 5 |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 한쪽만 원하면 시작될 수 있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8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2

지문 2 / 2

과학·기술

2025년 6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MCH)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다.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 극, 환원 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이 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 몰: 원자 또는 분자 6.02×10^{23} 개.

DAY 02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이 글은 4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액화 수소 방식은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액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 조건이 필요하다. | O | X |
| 2 | MCH는 톨루엔이 수소를 내놓으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다. | O | X |
| 3 | MCH는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 O | X |
| 4 | 암모니아는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적지만 독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 O | X |
| 5 |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도선을 통해, 전자는 전해질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한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4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2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법 모델과 임대차 보호

2025년 6월 고3 모의평가 4~9번

자유주의·사회복지국가·절차주의 법 모델은 현재 법체계에 공존하며,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과 계약, 재판과 조정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

자유주의 → 사회복지국가 → 절차주의 → 임대차 보호

- (가)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려 사회복지국가적 모델이 등장함
 (가)② 과도한 법적 규제는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을 낳음
 (가)③ 절차주의적 모델은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해 자율 조절 기능을 보존함
 (가)④ 세 법 모델은 서로 대체되지 않고 각자의 타당성을 지닌 채 공존함
 (나)① 재산 관계는 계약이 원칙이나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정하기도 함
 (나)② 주택·상가 임대차는 최단 존속 기간·갱신 요구권 등 법이 계약에 우선함
 (나)③ 사용 권리 소멸이나 임차인의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면 계약이 우선함
 (나)④ 분쟁은 재판 절차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 시 조정 절차를 따름

- 1 O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하여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하며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 2 X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는 법이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다.
 →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함.
- 3 X 세 가지 법 모델은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왔다.
 →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며 현재 법체계 안에 공존함.
- 4 O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 5 X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 한쪽만 원하면 시작될 수 있다.
 →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합의가 없으면 재판 절차를 따름.

지문 2 수소의 저장과 활용

2025년 6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수소는 저장·운송이 어려워 MCH나 암모니아 같은 수소 운반체가 활용되며,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 생산 → 수소 운반체 → MCH → 암모니아 → 연료 전지

- ① 수소 기체는 저장·운송이 어려워 액화 수소와 수소 운반체 방식이 제안됨
 ② 톨루엔-MCH 상호 전환은 기존 인프라를 쓰나 반복 시 화합물이 불안정해짐
 ③ 암모니아는 분자당 수소가 많고 인프라 이용이 쉬우나 높은 독성이 과제임
 ④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함

- 1 O 액화 수소 방식은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액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 조건이 필요하다.
 →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으나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음.
- 2 X MCH는 톨루엔이 수소를 내놓으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다.
 →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됨.
- 3 O MCH는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 4 X 암모니아는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적지만 독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고,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해결 과제임.
- 5 X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도선을 통해, 전자는 전해질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한다.
 →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함.

DAY 03

지문 1 / 2

인문·정보

2025년 6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 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DAY 03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이 글은 4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한다.	O	X
2	인포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다.	O	X
3	플로리디는 모든 인포그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O	X
4	추상화 층위에서는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O	X
5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의 공간이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4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3

지문 2 / 2

기술·공학

2025년 7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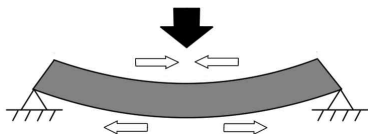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긴 다리 위에 자동차가 가득할 때, 다리는 어떻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다리에 가로놓이는 부재인 보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콘크리트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하여 무게를 지탱하게 할 수 있다. 하중 등의 외력이 부재에 작용할 때 그 반작용으로 부재 내부에는 저항하는 힘인 내력이 발생한다. 응력은 내력을 부재의 단면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면적당 내력의 크기이다. 응력에는 물체를 늘어나게 하는 힘인 인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 이와 반대로 물체를 압축하는 힘인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 등이 있다. 외력이 증가하면 응력도 증가하지만,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인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후 응력이 더 증가하면 부재가 파괴되는 극한 상태에 도달한다.

큰 하중이 보에 작용하면 보가 아래로 휘어지면서 변형이 일어난다. 하중에는 부재 자체 무게 등의 고정된 값인 고정하중과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무게 등 변화하는 값인 활하중이 있으며, 이 둘을 더한 것을 사용하중이라고 한다.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면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짧아지고, 하단에는 인장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길어진다. 보의 재료인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한 재료로,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선 등의 강재를 배치하여 인장응력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콘크리트 보강법에는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아래쪽에 강재인 철근을 배치한 것으로, 하중을 받으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철근은 인장력에 저항한다. 하중이 증가하여 인장응력이 인장강도보다 커지면 콘크리트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된다. 반면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게 될 인장응력이 정해진 한도까지 상쇄되도록 미리 압축응력을 가한 것이다.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이므로 압축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상쇄된다. 이를 위해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고강도 강재를 배치하고 인장하여 그 반작용으로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미리 가



한다. 이때 가해지는 압축응력을 긴장력이라고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와 부분 긴장 콘크리트로 나눌 수 있다. 완전 긴장 콘크리트는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강하게 준 것으로 부재에는 압축응력만 작용한다. 부재에 압축응력만 작용할 때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하지만 완전 긴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더라도 사용하중이 계획한 무게보다 커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큰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중앙부에 솟음이 발생한다.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보다 작은 긴장력을 준 것이다.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준 것으로 부재에는 압축응력만 작용한다. 이때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폭이 작고 활하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균열이 폐합되는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어 내구성이 우수하다.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부재가 경미하게 솟거나 수평을 이루게 설계할 수 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에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텐션 방식이 있다. 프리텐션 방식은 강재에 인장력을 가해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강재의 인장력을 풀어 준다. 콘크리트에 부착된 강재가 수축하면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콘크리트에 마찰력으로 전달되어 긴장력을 주는 방식이다. 포스트텐션 방식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에 강재를 인장하는 방식이다. 콘크리트 내에 강재를 삽입할 관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관에 강재를 삽입하고 인장한 후 양 끝을 정착장치로 고정한다. 콘크리트 양 끝의 정착장치가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콘크리트에 긴장력이 도입된다. 이처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부재에 압축응력을 주는 방법인 것이다.

* 타설: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

DAY 03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콘크리트는 인장에는 강하지만 압축에는 약한 재료이다.	O	X
2	하중으로 보가 변형되면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하단에는 인장력이 작용한다.	O	X
3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보다 큰 긴장력을 준 것이다.	O	X
4	부분 긴장 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중으로 생긴 균열이 활하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폐합될 수 있다.	O	X
5	포스트텐션 방식은 강재를 인장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굳은 뒤 강재의 인장력을 풀어 준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3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

2025년 6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인 인포그의 하나로 보아 도덕적 범위를 인공물까지 넓히고, 인포스피어를 추상화 층위를 통해 구성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인포그 → 있음 → 인포스피어 → 추상화 층위 → 구성

- ① 플로리다는 인간을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된 존재 '인포그'의 하나로 봄
- ② 인포그의 '있음'에서 내재적 가치를 찾아 도덕적 범위를 인공물까지 확장함
- ③ 인포스피어는 주체·대상이 상호 의존하며 추상화 층위로 인식되는 공간임
- ④ 추상화 층위로 인식된 정보는 '구성'된 것이며, 정보 철학은 현대 변화를 통찰함

1 X 플로리다는 인간을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한다.
→ 그것은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이며, 플로리다는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함.

2 O 인포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다.
→ 상호 연결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

3 X 플로리다는 모든 인포그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짐.

4 O 추상화 층위에서는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5 X 플로리다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의 공간이다.
→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지문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025년 7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인장에 약한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재로 압축응력(긴장력)을 미리 가해 하중에 의한 인장응력을 상쇄하는 방법이다.

응력 → 보의 변형 → 강재 보강 → 긴장력 → 도입 방식

- ① 외력에 저항하는 내력과 응력의 개념, 응력이 강도를 넘으면 균열·파괴가 일어남
- ② 하중을 받은 보의 하단엔 인장력이 작용해 인장 쪽에 강재를 배치해 보강함
- ③ 철근 콘크리트와 달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압축응력을 미리 가함
- ④ 완전 긴장은 사용하중, 부분 긴장은 고정하중의 인장응력을 상쇄하도록 함
- ⑤ 긴장력은 타설 전 인장하는 프리텐션, 타설 후 인장하는 포스트텐션으로 도입

1 X 콘크리트는 인장에는 강하지만 압축에는 약한 재료이다.
→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한 재료'임.

2 O 하중으로 보가 변형되면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하단에는 인장력이 작용한다.
→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짧아지고, 하단에는 인장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길어진다.'

3 X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보다 큰 긴장력을 준 것이다.
→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보다 작은 긴장력을 준 것'.

4 O 부분 긴장 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중으로 생긴 균열이 활하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폐합될 수 있다.
→ '활하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균열이 폐합되는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음.

5 X 포스트텐션 방식은 강재를 인장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굳은 뒤 강재의 인장력을 풀어 준다.
→ 그것은 프리텐션 방식이며, 포스트텐션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에 강재를 인장하는 방식'.

DAY 04

지문 1 / 2

인문·철학

2025년 7월 고3 학력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정의한다.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 보았다.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하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며,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철학은 정치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

다는 깨달음을 준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에 우위를 부여해 왔다.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담보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다.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에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한의 순간에는 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형적 법 규범이 부재하기에 제한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안 전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타자를 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한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철학은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에 주목하고 상대주의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AY 04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이 글은 8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간의 평등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O	X
2	아렌트는 권력을 지배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정치를 권력 쟁취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O	X
3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 공간에서의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	O	X
4	데리다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로 창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O	X
5	데리다에 따르면 정의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해체는 언젠가 종결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8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4

지문 2 / 2

기술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굽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부호화를 이용한다.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지각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가 있다.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 Hz부터 10,000 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 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을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지각부호화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즉 지각부호화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DAY 04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한 오디오 파일 안에서는 소리 크기와 관계없이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O	X
2	100 Hz 이하의 저음은 1,000~10,000 Hz 대역보다 작은 소리여도 들을 수 있다.	O	X
3	두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클수록 차폐가 더 쉽게 일어난다.	O	X
4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이 고음일 때 저음일 때보다 훨씬 넓다.	O	X
5	지각부호화에서는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작은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4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아렌트와 데리다의 법

2025년 7월 고3 학력평가 4~9번

아렌트는 공적 공간에서의 행위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헌법의 정당성을 비판하며 해체와 재구축을 통한 타자를 향한 정의를 주장했다.

로고스 → 행위 → 정치적 자유 → 해체 → 타자

- (가)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정치적 동물로 정의함
 (가)② 아렌트는 다원성에 기반해 공적 공간에서 말로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 함
 (가)③ 정치적 자유는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 권력 행사이며, 권력은 공적 공간에 내재함
 (가)④ 법은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져 행위를 보장할 때만 정당하며, 정치는 모두에게 열림
 (나)① 데리다는 말·이성에 우위를 둔 서구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비판함
 (나)② 헌법은 소급적으로 정당화된 것이며, 그에 근거한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봄
 (나)③ 법의 정당성은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으로 도출된다고 주장함
 (나)④ 타자에 대한 차별·배제를 줄이는 정의를 강조하며 주변부 문화에 주목하게 함

- 1 O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간의 평등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함.
- 2 X 아렌트는 권력을 지배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정치를 권력 쟁취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며, 정치가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함.
- 3 O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 공간에서의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
 → 말을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 하므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함.
- 4 X 데리다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로 창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 그것은 기존의 믿음이며, 데리다는 헌법이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5 X 데리다에 따르면 정의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해체는 언제나 종결된다.
 →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지문 2 지각부호화 오디오 압축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데이터 양이 많아, 최소가청강도와 차폐라는 청각 특성을 이용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제거하고 비트를 차등 할당하는 지각부호화로 압축한다.

아날로그 저장 → 디지털 신호 → 최소가청강도 → 차폐·임계대역 → 비트 차등 할당

- ① 축음기는 나팔의 진동을 바늘 홈으로 새겨 소리를 아날로그로 저장함
 ② 현재는 소리를 균일한 비트의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나 데이터가 많아 압축이 필요함
 ③ 지각부호화는 최소가청강도 등 청각 특성으로 감도 낮은 소리를 제거해 압축함
 ④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리는 차폐와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의 개념
 ⑤ 임계대역마다 차폐 문턱값을 구해 비트를 차등 할당하고 문턱 아래 소리는 제거함

- 1 O 한 오디오 파일 안에서는 소리 크기와 관계없이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 2문단: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
- 2 X 100 Hz 이하의 저음은 1,000~10,000 Hz 대역보다 작은 소리여도 들을 수 있다.
 → 3문단: 100 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 3 X 두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클수록 차폐가 더 쉽게 일어난다.
 → 4문단: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일어나지 않음
- 4 O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이 고음일 때 저음일 때보다 훨씬 넓다.
 → 4문단: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 5 X 지각부호화에서는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작은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
 → 5문단: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손실을 낮춘다

DAY 05

지문 1 / 2

사회·법

2025년 7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도로교통법이 아무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도로상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구든 운전을 하려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법적 금지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 법률효과의 내용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를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허가라는 명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처럼 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률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금하여야 할 행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다가, 법률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익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사전에 해제하는 행정행위가 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허가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로 볼 수 있다. 허가는 잠정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법률요건을 갖추었다면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예외적 승인은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여 주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행위이다. 법에 따라 학교 근처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한 LPG 충전소를 예외적인 경우에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예외적 승인의 경우 금지의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한편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가 되었다. 판례는 음식점 영업허가 등의 경우는 허가의 거부를 부인하여 왔으나,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행정청이 진다.

또한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와도 구별할 수 있다. 형성적 행정행위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법률효과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법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는 공무원의 임명, 버스운송사업면허처럼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법률상의 힘을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한다. 그래서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는 항상 신청을 필요 요건으로 한다. 특허를 받은 자는 특허를 통해 얻은 법률상의 힘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동종 업종의 다른 종사자에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때에는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뿐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DAY 05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허가는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행위임을 전제로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 O | X |
| 2 | 예외적 승인은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해제 사유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O | X |
| 3 |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 책임은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진다. | O | X |
| 4 | 판례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 한해 법에 정한 사유 외로도 허가 거부를 인정한다. | O | X |
| 5 | 허가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한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5

지문 2 / 2

과학

2025년 10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연소는 가연물, 열, 산소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시작된다. 이후 연소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자유 라디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유 라디칼은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입자로, 연소 과정에서는 높은 온도에 의해 가연물 분자가 쪼개지면서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주변의 다른 분자와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소 반응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 화재의 규모가 커진다. 따라서 자유 라디칼의 수를 통제하는 것은 연소를 억제하는 소화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화 방식에는 물리적 소화 방식과 화학적 소화 방식이 있고 물리적 소화 방식은 다시 냉각소화와 질식소화로 나뉜다. 냉각소화는 물이나 액화 이산화 탄소 등의 냉각제를 화염에 분사하여 자유 라디칼의 생성에 필요한 열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위 시간당 가연물에서 방출되는 열의 양인 열 방출률과 단위 시간당 냉각제가 제거하는 열의 양인 열 제거율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열이 제어되었다는 것은 기화 과정에서 냉각제의 열 제거율이 가연물의 열 방출률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열 방출률은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천천히 연소할수록 낮은 값을 갖는다. 냉각제 분사로 온도가 낮아지면 가연물에서 나온 가연성 기체와 산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활성 분자의 수도 급감한다. 이때 화학 반응의 속도를 나타내는 반응 속도 상수는 활성 분자의 수에 정비례하므로 그 값이 급격히 감소한다. 활성 분자의 수가 줄어들어 자유 라디칼이 새롭게 생성되는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화염이 약해지는 것이다. 한편 냉각제가 기화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주변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수반되며 이 역시 소화에 기여한다.

질식소화는 불활성 기체나 고체 분말을 살포하여 주변의 산

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한계 산소 농도란 연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의미하며, 가연물마다 고유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가연물 일정량이 완전히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의 총량인 연소열이 클수록 한계 산소 농도가 낮다. 연소 구역 내의 산소 농도가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낮아지면 자유 라디칼 생성 반응의 빈도가 줄어 연쇄 반응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 가연물이 방출하는 열의 양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열의 양보다 적어지는 열 균형의 붕괴가 일어나 화염이 약해진다.

화학적 소화 방식인 억제 소화는, 화염에 분사된 억제제가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면서 방출한 포획제를 통해 이미 활동 중인 자유 라디칼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다. 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분해되는 온도는 다른데, 분자 내 결합력이 강한 억제제일수록 분해에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포획제는 자유 라디칼과 결합하여 안정된 분자를 만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화염이 약해진다.

배터리와 같은 특정 가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유 라디칼을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완전한 소화가 어렵다. 가연물 내부에서 발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지속되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 연소에 필요한 조건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 폭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냉각제를 가연물에 지속적으로 분사하여 열이 내부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부에 열이 남은 경우 가연물의 온도가 열 폭주를 일으키는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재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지속적인 냉각이 이루어져야만 소화가 완료된다.

DAY 05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자유 라디칼은 높은 온도에서 가연물 분자가 쪼개지며 생성되고, 연쇄 반응으로 그 수가 늘어난다. | O | X |
| 2 | 냉각소화에서 열이 제어되었다는 것은 가연물의 열 방출률이 냉각제의 열 제거율을 초과했다는 뜻이다. | O | X |
| 3 | 연소열이 큰 가연물일수록 한계 산소 농도가 높다. | O | X |
| 4 | 분자 내 결합력이 강한 억제제일수록 분해되는 데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 O | X |
| 5 | 열 폭주가 일어난 화재는 자유 라디칼을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5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허가·예외적 승인·특허

2025년 7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로,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예외적 승인 및 새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와 구별된다.

명령적 행정행위 → 허가 → 예외적 승인 → 재량권 → 특허

- ① 의사표시로 법률효과가 생기면 법률행위적, 그중 자유를 제한·해제하면 명령적 행정행위
- ② 허가는 공익 침해 우려로 금지한 행위를 사전 심사해 해제하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임
- ③ 허가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예외적 승인은 유해 행위를 예외 허용하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 ④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없으나 판례는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거부를 인정함
- ⑤ 허가는 새로운 법률상 힘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와도 구별됨

- 1 X 허가는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행위임을 전제로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 2문단: 법률로 금지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행위임을 뜻하지 않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
- 2 O 예외적 승인은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해제 사유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3문단: 예외적 승인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3 X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 책임은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진다.
→ 4문단: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거부 사유의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진다
- 4 O 판례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 한해 법에 정한 사유 외로도 허가 거부를 인정한다.
→ 4문단: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
- 5 X 허가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한다.
→ 5문단: 허가는 행위 가능성을 부여할 뿐 관련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지문 2 자유 라디칼과 소화

2025년 10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연소의 지속은 자유 라디칼의 연쇄 반응에 달려 있으므로 소화는 냉각·질식·억제 방식으로 자유 라디칼을 통제하며, 열 폭주 화재는 지속적 냉각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유 라디칼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억제 소화 → 열 폭주

- ① 연소는 자유 라디칼의 연쇄 반응으로 커지므로 그 수를 통제하는 것이 소화의 핵심임
- ② 냉각소화는 냉각제로 열을 제어해 활성 분자와 자유 라디칼 생성을 줄임
- ③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춰 연쇄 반응을 둔화시킴
- ④ 억제 소화는 억제제가 분해되며 내놓은 포획제로 자유 라디칼을 직접 제거함
- ⑤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로 조건이 자체 생성되므로 지속적 냉각이 있어야 소화됨

- 1 O 자유 라디칼은 높은 온도에서 가연물 분자가 쪼개지며 생성되고, 연쇄 반응으로 그 수가 늘어난다.
→ 1문단: 높은 온도에 의해 가연물 분자가 쪼개지면서 생성,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 X 냉각소화에서 열이 제어되었다는 것은 가연물의 열 방출률이 냉각제의 열 제거율을 초과했다는 뜻이다.
→ 2문단: 냉각제의 열 제거율이 가연물의 열 방출률을 초과했다는 것
- 3 X 연소열이 큰 가연물일수록 한계 산소 농도가 높다.
→ 3문단: 연소열이 클수록 한계 산소 농도가 낮다
- 4 O 분자 내 결합력이 강한 억제제일수록 분해되는 데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 4문단: 결합력이 강한 억제제일수록 분해에 더 높은 온도가 필요
- 5 X 열 폭주가 일어난 화재는 자유 라디칼을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다.
→ 5문단: 자유 라디칼을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완전한 소화가 어렵다

DAY 06 지문 1 / 2

예술·영화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대중 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SF(Science Fiction)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봄’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봄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봄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DAY 06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크라카우어는 사회에서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 영화의 표면에 투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 O | X |
| 2 | 제임슨에 따르면 서사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므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 O | X |
| 3 | SF에서 다루는 소재와 서사는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한다. | O | X |
| 4 | 수빈에게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요소이다. | O | X |
| 5 | 수빈은 SF 속 세계와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면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고 보았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6

지문 2 / 2

과학·생명

2026년 3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 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결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한다.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다.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로,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로 작용한다. 이 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DAT)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

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뉴런 안에서 분해된다. 다만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포함된다.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다.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다.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어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되면 시상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이로 인해 시상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면서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운동이 시작된다. 반면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된다.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하여 목표하는 운동의 시작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

DAY 06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이 글은 4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음식이나 약물로 섭취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 O | X |
| 2 | 자가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의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 O | X |
| 3 |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는 DAT가 있어 분비된 도파민은 모두 뉴런 안으로 재흡수된다. | O | X |
| 4 | 직접 경로에서는 내측 창백핵 뉴런이 억제되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운동이 시작된다. | O | X |
| 5 |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4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6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영화와 SF 속 사회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4~9번

(가)는 영화의 모티브·이미지와 서사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려 한 크라카우어와 제임슨의 관점을, (나)는 노퍽과 인지적 낯섬을 중심으로 SF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수빈의 관점을 설명한다.

대중 취향 → 숨은 이념 → 역사화 → 노퍽 → 인지적 낯섬 → 유토피아

- (가)① 대중 예술인 영화, 특히 장르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됨
 (가)② 크라카우어는 모티브·이미지를 해석해 영화 이면에 숨은 이념을 읽어 내려 함
 (가)③ 제임슨은 서사의 '역사화'로 현재 사회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 함
 (나)① SF는 과학적 진위보다 개연성이 중요한 서사 예술임
 (나)② 수빈은 경이로움을 주는 지배적 요소를 노퍽이라 하며 진정한 주인공으로 봄
 (나)③ 현실과 닮았지만 다른 SF 세계는 인지적 낯섬을 일으켜 비판적 성찰로 이끌
 (나)④ 수빈은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강조함

- 1 X 크라카우어는 사회에서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 영화의 표면에 투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 (가)2문단: 이념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불순·위험한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 2 O 제임슨에 따르면 서사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므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 (가)3문단: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 3 X SF에서 다루는 소재와 서사는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한다.
 → (나)1문단: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연성이 중요하다
- 4 O 수빈에게 노퍽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요소이다.
 → (나)2문단: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
- 5 O 수빈은 SF 속 세계와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면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고 보았다.
 → (나)3문단: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지문 2 도파민과 수의적 운동

2026년 3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분비된 도파민은 D1·D2 계열 수용체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며, 선조체의 직접 경로는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해 수의적 운동을 촉진한다.

도파민 합성 → D1·D2 수용체 → 재흡수 → 직접·간접 경로 → 운동 촉진

- ① 뇌에서 합성된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며 시냅스 후 뉴런에 신호를 전달함
 ② D1은 흥분성, D2는 억제성 수용체이며 자가 수용체와 DAT 재흡수로 도파민이 조절됨
 ③ 수의적 운동은 직접 경로(운동 시작)와 간접 경로(운동 차단)가 보완적으로 조절함
 ④ 흑질 도파민은 직접 경로는 활성화, 간접 경로는 억제하여 운동을 촉진함
- 1 X 음식이나 약물로 섭취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 1문단: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 2 O 자가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의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 2문단: 자가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면 신호 전달 활성화가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단
- 3 X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는 DAT가 있어 분비된 도파민은 모두 뉴런 안으로 재흡수된다.
 → 2문단: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며, DAT가 없으면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 4 O 직접 경로에서는 내측 창백핵 뉴런이 억제되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운동이 시작된다.
 → 3문단: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 억제 →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 활성화 → 운동 시작
- 5 X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다.
 → 4문단: 직접 경로에는 D1 계열, 간접 경로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밀집

DAY 07

지문 1 / 2

사회·언론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기피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 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

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숙고를 촉진 한다는 것이다.

DAY 07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이 글은 4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20세기 중·후반 언론은 주로 공중의 일상과 관련된 사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 | O | X |
| 2 | 리프만은 공중이 공공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O | X |
| 3 | 듀이는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라고 보았다. | O | X |
| 4 | 로젠은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공론장 형성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 O | X |
| 5 | 마이어는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면 주관성 개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4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7

지문 2 / 2

기술·광학

2026년 5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카메라 등의 광학 기기에 쓰이는 볼록 렌즈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렌즈로 입사한 광선들을 수렴시킨다. 물체 표면의 한 점인 물체점에서 렌즈로 입사한 여러 광선이 굴절하여 수렴하는 점을 상점이라고 한다. 렌즈로 입사한 모든 광선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한다면 상은 뚜렷한 점의 형태로 맺히지만, 하나의 상점에 수렴하지 않으면 상이 흐려지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수차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렌즈에서 굴절된 광선들은 서로 다른 두 상점에 수렴하게 되어 흐릿한 상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점 수차에 해당한다.

광축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렌즈 면에 수직인 가상의 직선이다.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고, 렌즈가 회전 대칭성을 지니며, 광선들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할 경우 뚜렷한 상이 맺힌다. 이때 회전 대칭성이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도 항상 원래의 형태와 겹쳐지는 성질이다. 물체점으로부터 렌즈로 입사한 광선들의 집합인 광선 다발은 물체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원뿔 형상을 띤다. 렌즈 중심으로 향하는 광선인 주광선은 광선 다발을 대표하는데, 주광선은 광축을 따라 렌즈 중심으로 입사하고 광선 다발의 형상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들로 광선 다발을 나누었을 때,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해진다. 이때 각 평면에서의 광선의 굴절 양상 또한 서로 동일해져, 전체 광선 다발은 광축 위에 있는 하나의 상점에 수렴하게 된다.

반면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리 벗어나면 주광선은 광축을 따라 입사하지 않게 되며, 광선 다발의 형상은 광축을 기준으로 회전 대칭성을 보이지 않게 되어 비점 수차가 발생한다. 이때 광선 다발의 수렴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평면이 자오면과 구결면이다. 자오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이며, 광축을 중심으로 물체점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구결면

은 자오면과 수직인 평면으로, 광축을 포함하지 않으며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자오면 위에 있는 광선들인 자오 광선과 구결면 위에 있는 광선들인 구결 광선은 입사 양상이 다르며, 이에 따라 굴절 양상도 다르다. 이 때문에 광선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수렴하게 되는데, 자오 광선이 수렴하는 점을 자오 상점, 구결 광선이 수렴하는 점을 구결 상점이라고 한다. 이때 자오 상점이 구결 상점보다 렌즈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

자오 상점과 구결 상점 사이의 거리인 비점 격차가 커질수록 비점 수차는 심해진다.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오 상점부터 구결 상점까지의 임의의 지점에서 맺히는 상의 형상은, 같은 지점에서 광선 다발을 광축에 수직인 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형상과 동일하다. 자오 상점에서 맺히는 상을 일차상이라고 하고, 구결 상점에서 맺히는 상을 이차상이라고 한다. 일차상과 이차상은 모두 선분의 형상인데, 일차상은 구결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루고, 이차상은 자오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 이때 일차상과 이차상은 서로 수직이다. 비점 격차가 커질수록 일차상의 길이와 이차상의 길이는 길어진다.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의 대부분은 타원의 형상을 띠지만, 중간 부근에 원형을 띠는 유일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의 상을 최소 착란원이라고 한다. 최소 착란원은 광선들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할 때 형성되는 상과 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 중 가장 뚜렷하다. 비점 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은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진다.

DAY 07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이 글은 4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으면 주광선을 포함하는 어느 평면에서든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동일하다. | O | X |
| 2 | 구결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모두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이다. | O | X |
| 3 | 구결 상점은 자오 상점보다 렌즈의 중심에 더 가깝다. | O | X |
| 4 |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 O | X |
| 5 | 비점 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은 작아지면서 더 뚜렷해진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4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7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공공 저널리즘

2025년 9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에 두는 공공 저널리즘은 공론장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객관성 측면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한 방법론적 객관주의로 답한다.

뉴스 기피 → 리프만·듀이 → 공론장 → 객관성 비판 → 방법론적 객관주의

- ① 권력 집단 중심의 피상적 보도로 공중이 뉴스를 기피하자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함
- ② 리프만은 언론인 전문화로 객관적 뉴스를, 듀이는 언론의 공적 담론의 장을 강조함
- ③ 로젠: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참여자로 보고 사회 과학적 방법으로 공론장을 형성함
- ④ 객관성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한 방법론적 객관주의를 내세움

- 1 **X** 20세기 중·후반 언론은 주로 공중의 일상과 관련된 사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
→ 1문단: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여 공중의 일상과 괴리됨
- 2 **O** 리프만은 공중이 공공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2문단: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3 **X** 듀이는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라고 보았다.
→ 2문단: 언론인의 전문화는 리프만의 견해이고, 듀이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주장
- 4 **O** 로젠은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공론장 형성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 3문단: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
- 5 **O** 마이어는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면 주관성 개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4문단: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

지문 2 볼록 렌즈의 비점 수차

2026년 5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어지면 광선 다발의 회전 대칭성이 깨져 자오 광선과 구결 광선이 서로 다른 상점에 수렴하는 비점 수차가 생기며, 그 정도는 비점 격차로 나타난다.

수차 → 회전 대칭성 → 자오면·구결면 → 비점 격차 → 최소 착란원

- ① 광선이 한 상점에 모이지 않으면 수차가 생기며, 두 상점에 맺히는 것이 비점 수차임
- ②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으면 광선 다발이 회전 대칭성을 지녀 한 상점에 수렴함
- ③ 물체점이 광축에서 벗어나면 자오 광선과 구결 광선이 서로 다른 상점에 수렴함
- ④ 비점 격차가 클수록 수차가 심해지며 일차상·이차상·최소 착란원이 뭉침

- 1 **O**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으면 주광선을 포함하는 어느 평면에서든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동일하다.
→ 2문단: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들로 나누었을 때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해진다
- 2 **X** 구결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모두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이다.
→ 3문단: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은 자오면이고, 구결면은 광축을 포함하지 않는다
- 3 **X** 구결 상점은 자오 상점보다 렌즈의 중심에 더 가깝다.
→ 3문단: 자오 상점이 구결 상점보다 렌즈 중심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
- 4 **O**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 4문단: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
- 5 **X** 비점 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은 작아지면서 더 뚜렷해진다.
→ 4문단: 비점 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은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진다

DAY 08

지문 1 / 2

인문·미학

2025년 10월 고3 학력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미학적 담론에서 천재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 변화는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신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예술가는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이후 15세기 무렵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싹트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천재가 예술의 역사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예술가의 임무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천재는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었다.

자연 모방은 예술의 중심적 경향으로 18세기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성장과 함께 예술가의 지위도 상승하면서 예술가들은 자연에 대한 단순한 재현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천재 개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뒤보는 천재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모방하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뒤보는 천재의 모방은 정해진 창작 규칙이 아닌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뒤보는 천재를 자연 모방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18세기 후반 칸트의 미학에서는 천재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칸트는 천재의 능력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수만이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천재가 창작한 예술 작품만이 아름다운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전범이 된다. 칸트에 이르러 천재는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예술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19세기 들어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예술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낭만적 천재상이 제시되었다. 낭만주의 시대의 천재는 무의식적인 영감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며,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즉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 천재는 종교의 예속과 모방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독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천재상은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으로, 이후 이어지는 시대의 천재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

가다머는 이해란 무엇인가에 답하는 철학적 문제에 집중하였다. 가다머는 ‘영향사적 의식’, 즉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의식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이해의 주체와 대상이 지니는 각각의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다머에 따르면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이해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간격은 대화를 유발한다. 양자 간에 서로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은, 주체에게 축적된 정신적 자산 일체로서의 ‘현재의 지평’과 대상이 지닌 역사적 배경 일체로서의 ‘역사적 지평’이 융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평의 융합]을 가다머는 이해로 규정했으며, 지평이 융합되어도 간격은 존재하기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가다머에게 천재의 뛰어난 창작 능력을 강조하는 천재 미학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가다머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이해의 과정은 주체와 대상 간의 대화 과정이기에, 예술 작품의 의미는 수용자가 예술 작품을 대면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된다. 가다머는 양자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며, 이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에 의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가다머는 예술과 관련한 ‘미적 무구별’을 주장하면서 천재 미학을 비판하였다. 미적 무구별이란 예술 작품을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미적 구별은 예술 작품을 외부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시켜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 보게 만든다. 가다머는 천재 미학이 미적 구별을 통해 예술을 역사적 삶과의 연관성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법칙의 형상화를 중시하는 창작 전통을 해체했다고 지적했다.

가다머가 예술가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가다머가 바라보는 예술가는 기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현실을 모방하는 존재이다. 이때 예술가의 역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 현실의 대상을 선택, 강조, 생략하는 것이다. 이런 예술가의 역할도 역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가다머의 입장이다.

DAY 08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었다. | O | X |
| 2 | 뒤보는 천재가 자연 모방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고 보았다. | O | X |
| 3 | 칸트는 천재의 능력이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O | X |
| 4 | 가다머는 지평이 융합되어도 주체와 대상 사이의 간격이 남기 때문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O | X |
| 5 | 가다머는 천재 미학이 미적 무구별을 통해 예술을 역사적 삶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8

지문 2 / 2

과학

2026년 6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게 수’로 표현된다.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게 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DAY 08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구형 액체 방울의 내외부 압력 차이는 방울의 반지름에 정비례한다. | O | X |
| 2 | 액체 방울에서 내부 압력은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 O | X |
| 3 | 폐포에서 계면활성제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높여 폐포의 확장을 쉽게 만든다. | O | X |
| 4 |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노즐의 지름이 커지면 오네소르게 수는 작아진다. | O | X |
| 5 |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적정 범위보다 커지면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오염이 발생한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8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천재 미학과 가다머

2025년 10월 고3 학력평가 4~9번

(가)는 인간 주체성의 욕망 속에서 천재 개념이 시대별로 변화한 과정을, (나)는 이해를 지평 융합으로 본 가다머가 천재 미학을 비판한 논리를 설명한다.

자연 모방 → 개성 표현 → 독창적 창작 → 지평 융합 → 미적 무구별

- (가)① 천재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했고, 이는 주체성 확보 욕망과 관련된다
 (가)② 중세엔 예술이 종교의 수단, 르네상스엔 천재가 자연을 완벽히 재현하는 존재
 (가)③ 뒤보: 천재는 자연 모방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
 (가)④ 칸트: 천재는 타고난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창작하며 그 작품이 전범이 된다
 (가)⑤ 낭만주의: 천재는 무의식적 영감으로 독창성을 극대화하는 자유로운 존재
 (나)① 가다머: 이해는 현재의 지평과 역사적 지평이 대화로 융합하는 과정이다
 (나)② 작품의 의미는 예술가가 완결하지 않고 수용자와의 대화 속에서 늘 달라진다
 (나)③ 미적 구별로 예술을 현실·역사에서 떼어 놓았다며 천재 미학을 비판한다
 (나)④ 예술가는 현실을 선택·강조·생략해 모방하며, 그 역할도 역사 안에 있다

- 1 O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었다.
 → (가)② '천재는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었다'
- 2 X 뒤보는 천재가 자연 모방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고 보았다.
 → (가)③ 뒤보는 천재를 '자연 모방의 테두리 안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로 봄. 모방을 벗어난 창작은 칸트의 관점
- 3 X 칸트는 천재의 능력이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가)④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수만이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
- 4 O 가다머는 지평이 융합되어도 주체와 대상 사이의 간격이 남기 때문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나)① '지평이 융합되어도 간격은 존재하기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5 X 가다머는 천재 미학이 미적 무구별을 통해 예술을 역사적 삶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 (나)③ 예술을 역사적 삶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미적 구별'. 가다머 자신은 미적 무구별을 주장

지문 2 라플라스 식과 잉크젯

2026년 6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표면 장력과 방울의 압력 관계를 나타내는 라플라스 식이 폐포·기포·잉크젯 프린터에 적용되는 원리와, 인쇄 안정성을 나타내는 오네소르게 수를 설명한다.

표면 장력 → 라플라스 식 → 폐포·기포 → 잉크 방울 → 오네소르게 수

- ① 방울은 외부 압력+표면 장력 압력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크기를 유지한다
 ② 폐포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수축 압력이며, 계면활성제가 이를 낮춰 확장을 돕는다
 ③ 크기가 다른 두 기포가 합쳐질 때 공기가 이동해 더 큰 기포 하나가 된다
 ④ 잉크젯 프린터의 구형 잉크 방울도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높다
 ⑤ 오네소르게 수는 점도가 클수록 크고, 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의 곱이 클수록 작다
 ⑥ 오네소르게 수가 약 0.1~1.0이면 안정적 인쇄, 벗어나면 분사 실패나 오염이 생긴다

- 1 X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구형 액체 방울의 내외부 압력 차이는 방울의 반지름에 정비례한다.
 → ①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
- 2 O 액체 방울에서 내부 압력은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 ① '내부 압력은 ... 팽창시키는 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 수축시키는 힘'
- 3 X 폐포에서 계면활성제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높여 폐포의 확장을 쉽게 만든다.
 → ② 계면활성제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 4 O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노즐의 지름이 커지면 오네소르게 수는 작아진다.
 → ⑤ '표면 장력,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 5 X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적정 범위보다 커지면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오염이 발생한다.
 → ⑥ 범위보다 크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위성 방울은 '반대의 경우'

DAY 09

지문 1 / 2

사회·법

2025년 10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법적 인격체로, 법인격의 부여 대상이 재산 자체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재단 법인과 사단 법인으로 나뉜다. 또한 경제적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이 개인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었다더라도 자산의 소유권은 특정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자산의 운용은 법인의 정관*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거나 법인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 사회·경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법인은 자산 운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지만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 재단은 비영리 법인 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재단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격은 자산 자체에 부여되어 있다.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설치된다. 재단 법인의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며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인 기본 재산은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 등기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액수를 줄이려면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본 재산 외의 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운용 실적을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의 종류 및 자산 운용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상법의 적용을 함께 받기 때문에 자산 운용에 관한 법적 통제가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사단 법인이면서 영리 법인으로, 법인격은 주식회사의 구성원 단체에 부여된다. 자산

운용의 권한은 이사회나 주주 총회,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고 이들은 정해진 법령 내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자산은 주주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며 자본금,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발행된 총 주식 수에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다. 이는 회사의 지급 능력과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초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액이 금지된다. 이익 잉여금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용되지 않고 유보된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인 배당을 통해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사업 투자, 손실 보전 등을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자본 잉여금은 주식 등 자본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으로 손실 보전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사용하게 된다. 자본금의 감소는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중한 자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자산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 실행의 요건이 다르다. 주식회사는 무상 증자를 실시하여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의 일부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상 증자를 실행하면 자산의 구조만 재편되고 자산의 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배당은 주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회사는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 액면가: 화폐나 유가 증권 따위의 표면에 적힌 가격.

DAY 09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법인의 자산이 개인의 출자로 형성되었다면 그 자산의 소유권은 출자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 O | X |
| 2 | 장학 재단의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 X |
| 3 | 자본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 O | X |
| 4 | 주식회사는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자본금을 사용하게 된다. | O | X |
| 5 | 무상 증자는 자산의 총 규모를 늘리므로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행할 수 있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9

지문 2 / 2

기술·공학

2026년 7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도로 면을 경사 없이 수평으로 만들면 빗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차량 주행에 위험 요소가 된다. 따라서 도로에는 반드시 배수를 위한 경사가 필요하다. 직선 도로에서는 횡단면 기준으로 도로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중앙이 높은 좌우 대칭의 내리막 경사를 둔다. 배수만을 고려하면 횡단 경사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경사가 너무 크면 운전 중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노면이 젖거나 결빙이 된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는 포장도로의 경우 2% 이내로 설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중앙선 기준 도로 폭 1m당 높이가 2cm씩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곡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곡선을 따라 주행할 때 차량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반경에는 반비례한다. 이러한 원심력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곡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이다. 마찰력이란 접촉한 두 물체가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그 크기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진다. 이때 접촉면의 상태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마찰 계수이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걸린 1톤 차량을 평평한 아스팔트 포장 위에서 끌기 위해서는 약 0.4 ~ 0.8톤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노면의 마찰 계수가 0.4 ~ 0.8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면이 얼음으로 덮인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0.2 ~ 0.3 수준으로 작아져 차량을 훨씬 쉽게 끌 수 있다.

도로의 마찰력이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보다 클 때에는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지만 마찰력이 원심력의 크기와 같아질 때부터 차량은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도로를 포장할 때 내부에 작은 빈 공간을 두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한 다공성 포장이나 고무 가루를 넣은 특수 포장재를 사용하면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도로가 결빙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의 마찰 계수를 결빙 시 마찰 계수의 절반 수준인 0.1 ~ 0.16 범위로 가정하는데, 이는 결빙 시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곡선 도로에서 직선 도로와 같은 횡단 경사를 그대로 적용하면 차량이 원심력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곡선 도로는 바깥쪽을 안쪽보다 높게 만드는 편경사를 적용한다. 편경사를 주면 원심력의

일부가 상쇄되어 곡선 도로에서 차량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가 줄거나 도로가 열면 차량이 안쪽으

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편경사는 최대 8% 이내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경사는 횡단 경사와 달리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왕복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직선 도로와 곡선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는 완화 곡선 도로를 둔다. 이를 통해 직선 도로에서 일정 반경을 지닌 곡선 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운전자가 도로의 굽어짐을 조금씩 인지하게 하여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틀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게 한다. 또 주행의 안전성을 위해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를 완화 곡선 도로 구간에서 서서히 변화시켜 곡선 도로에서의 편경사로 전환한다.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설계 속도와 곡선 도로의 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설계 속도에 비례하고 곡선 도로의 반경에 반비례한다. 설계 속도는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로, 곡선 도로의 반경이나 편경사 등 각종 계산의 기준이 된다. 실제 도로에서는 설계 속도의 약 85% 정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한다.

한편, 도로에 곡선이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전방의 물체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워진다. 운전자가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시거'라고 하는데 시거가 확보된 곳에서는 도로 위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체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정지 시거라 하는데, 정지 시거는 물체를 인지한 순간부터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정지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운전자가 물체를 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제동 반응 시간이라고 하고, 이때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제동 반응 거리라고 한다. 정지 거리는 여기에 브레이크 작동 후 차량이 멈출 때까지 이동한 제동 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마다 주행 속도와 제동 반응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도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제동 반응 시간을 2.5초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 속도를 곱해 제동 반응 거리를 산정하고,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제동 거리를 산정한 후 정지 거리를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DAY 09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배수만 고려하면 횡단 경사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너무 크면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O	X
2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의 속도의 제곱과 회전 반경에 비례한다.	O	X
3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마찰 계수를 결빙 시보다 작은 값으로 가정한다.	O	X
4	편경사는 횡단 경사와 마찬가지로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O	X
5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곡선 도로의 반경이 클수록 길어진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9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법인의 자산 운용

2025년 10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체로서 법적 통제 아래 자산을 운용하며, 장학 재단과 주식회사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자산 운용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법인격 → 재단 법인 → 주식회사 → 자산 항목 → 증자·배당

- ①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체로, 자산은 법인에 귀속되고 권한자가 대신 운용한다
- ② 장학 재단은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주요 결정과 기본 재산 처분에 관할 기관 허가가 필요
- ③ 주식회사는 영리 사단 법인으로 상법을 함께 적용받아 자산 통제가 더 정교하다
- ④ 자산은 자본금·이익 잉여금·자본 잉여금으로 나뉘며 항목별로 사용 범위가 다르다
- ⑤ 무상 증자는 이사회 결정만으로, 자산이 유출되는 배당은 주주 총회 의결까지 필요

1 X 법인의 자산이 개인의 출자로 형성되었다면 그 자산의 소유권은 출자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 ① '개인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자산의 소유권은 특정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

2 O 장학 재단의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 법인의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며 ...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X 자본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 ④ 자본 잉여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

4 O 주식회사는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자본금을 사용하게 된다.
→ ④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사용'

5 X 무상 증자는 자산의 총 규모를 늘리므로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행할 수 있다.
→ ⑤ 무상 증자는 '자산의 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실행이 가능'

지문 2 도로 경사와 시거 설계

2026년 7월 고3 학력평가 10~13번

도로는 배수와 주행 안전을 위해 직선 구간의 횡단 경사, 곡선 구간의 편경사와 완화 곡선, 정지 시거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횡단 경사 → 원심력·마찰력 → 편경사 → 완화 곡선 → 정지 시거

- ① 직선 도로는 배수를 위해 중앙이 높은 횡단 경사를 두되 2% 이내로 제한한다
- ② 곡선 도로에선 원심력이 작용하고,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이를 버티게 한다
- ③ 마찰력이 원심력과 같아지면 미끄러지므로 설계 시 마찰 계수를 0.1~0.16으로 가정
- ④ 곡선 도로는 바깥쪽을 높인 편경사로 원심력을 일부 상쇄하되 최대 8% 이내로 한다
- ⑤ 완화 곡선 도로로 횡단 경사를 편경사로 서서히 바꾸며, 길이는 설계 속도에 비례
- ⑥ 곡선은 시야를 제한하므로 정지 거리보다 긴 정지 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 ⑦ 정지 거리=제동 반응 거리+제동 거리이며, 설계 시 제동 반응 시간을 2.5초로 둔다

1 O 배수만 고려하면 횡단 경사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너무 크면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 ① '배수만을 고려하면 횡단 경사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경사가 너무 크면 ... 쏠릴 수 있고 ...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2 X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의 속도의 제곱과 회전 반경에 비례한다.
→ ② 원심력은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반경에는 반비례'

3 O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마찰 계수를 결빙 시보다 작은 값으로 가정한다.
→ ③ 결빙 시 마찰 계수는 0.2~0.3인데, 설계 시에는 그 '절반 수준인 0.1 ~ 0.16 범위로 가정'함. '결빙 시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4 X 편경사는 횡단 경사와 마찬가지로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④ '편경사는 횡단 경사와 달리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왕복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

5 X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곡선 도로의 반경이 클수록 길어진다.
→ ⑤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설계 속도에 비례하고 곡선 도로의 반경에 반비례'

DAY 10

지문 1 / 2

사회·법

2026년 3월 고3 학력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면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법원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 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었다.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라 할 수 있다.

(나)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 절차 중에 행하여진 강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적부 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

적부 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이는 피의자가 강제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는 수사 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했더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이는 영장 발부라는 일회적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즉 강제 처분은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DAY 10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영장주의는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를 수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	☐
2	긴급 체포의 경우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띤다.	☐	☐
3	구속은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	☐
4	적부 심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친족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	☐
5	구속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면 구속 적부 심사에서 피의자가 석방될 수는 없다.	☐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0

지문 2 / 2

기술·전기

2026년 9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은 220V, 주파수가 60Hz인 교류 전원으로 초당 60번 크기와 방향이 규칙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소형 전기 기기들은 5V에서 12V 정도의 직류 전원을 공급해야 작동한다. 따라서 220V의 높은 교류 전압을 낮은 직류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어댑터에는 선형 방식과 스위칭 방식이 있다. 선형 방식은 변압기, 정류기, 평활 회로, 정전압 소자로 구성된다. 변압기는 입력되는 전압에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이 유도되어 출력 측에 발생하는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장치이다. 전원이 공급된 후, 변압기를 통과하면서 크게 낮아진 교류 전압은 정류기에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전압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전압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평활 회로가 사용된다. 평활 회로에는 에너지 저장 소자가 있어, 전압이 높을 때 일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압이 낮아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어댑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고정된 정전압 소자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든다. 예를 들어 5V 정전압 소자에 출력 전압보다 높은 9V 전압이 들어오면, 4V에 해당하는 전력을 열로 소모하고 필요한 5V만 출력한다.

선형 방식은 구성이 간단하지만, 전력 손실이 많고 열 발생이 과도하면 회로가 파손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커서 주파수가 낮으면 어댑터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재는 선형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고 소형화, 전력의 고효율화를 이룬 스위칭 방식이 주로 사용되지만, 선형 방식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스위칭 방식은 선형 방식과 동일한 기능의 전기 소자들이 사용되며, 정전압 소자를 사용하는 대신 스위치를 제어하여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 낸다. 먼저 220V 교류 전압이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치며 변동이 적은 전압으로 바뀐다. 이 전압은 변화가 적어 변압기에 입력되어도 변압기의 출력 측에 전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도체로 만들어진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 전압을 변화가 심한 전압으로 바꾼다. 스위치가 ‘온’인 동안은 입력력의 전압이 같아지고, ‘오프’인 동안은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데, 스위치는 대략 10~500kHz 사이의 주파수로 온과 오프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이때 한 주기 내에서 온 되어 있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온오프비에 따라 변압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달라진다. 그 비율이 커지면 출력 전압이 높아지고, 비율이 작아지면 전압이 낮아진다. 변압기에서 출력된 교류 전압은 다시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쳐 어댑터의 최종 출력 전압이 된다. 이때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들기 위해 비교 회로를 이용하여 최종 출력 전압이 기준 전압과 같아지도록 한다. 비교 회로는 최종 출력 전압을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스위치의 온·오프를 조정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스위칭 방식은 열로 소모되는 전력이 적지만, 스위치의 온·오프에 의해 생긴 전압 변동이 온·오프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노이즈로 남아 최종 출력 전압과 함께 출력된다.

DAY 10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선형 방식의 정전압 소자는 출력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력을 열로 소모한다. | O | X |
| 2 | 선형 방식에서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커진다. | O | X |
| 3 | 스위칭 방식에서는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친 전압을 그대로 변압기에 넣어도 출력 측에 충분한 전압이 발생한다. | O | X |
| 4 | 스위칭 방식에서 한 주기 내 온 되어 있는 시간의 비율이 커지면 변압기의 출력 전압이 높아진다. | O | X |
| 5 | 스위칭 방식은 정전압 소자를 사용하여 최종 출력 전압을 기준 전압과 같게 만든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0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영장주의와 적부 심사

2026년 3월 고3 학력평가 4~9번

(가)는 강제 처분 전에 법관의 영장을 받게 하는 영장주의와 그 예외·강화를, (나)는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적부 심사를 설명한다.

강제 처분 → 영장주의 → 예외·사후 검증 → 영장 실질 심사 → 적부 심사

- (가)① 강제 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받는 영장주의를 둔다
 (가)② 영장은 합법성을 밝히는 허가 문서이자 기본권 제한을 사전 심사한 표지이다
 (가)③ 긴급 체포·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하며 법원 판단은 사후 검증이 된다
 (가)④ 구속은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영장 실질 심사로 발부 문턱을 높였다
 (나)① 적부 심사는 체포·구속된 개인이 처분의 정당성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나)② 청구권자가 폭넓고, 법원은 48시간 내 심문해 처분 유지 필요성을 판단한다
 (나)③ 영장이 적법했어도 도주·증거 인멸 위험이 사라지면 석방되어 사법 통제가 이어진다

- 1 X 영장주의는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를 수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 (가)① 수사 기관의 자체 판단은 남용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O 긴급 체포의 경우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띤다.
 → (가)③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 3 X 구속은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 (가)④ 구속은 '체포와 달리 ...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4 O 적부 심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친족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 (나)②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
- 5 X 구속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면 구속 적부 심사에서 피의자가 석방될 수는 없다.
 → (나)③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더라도 ...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

지문 2 어댑터의 두 방식

2026년 9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220 V 교류를 낮은 직류로 바꾸는 어댑터에는 정전압 소자를 쓰는 선형 방식과 스위치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스위칭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원리와 장단점이 다르다.

교류 → 직류 → 선형 방식 → 정전압 소자 → 스위칭 방식 → 온오프비

- ① 소형 기기는 낮은 직류가 필요해 220 V 교류를 바꾸는 어댑터를 쓴다
 ② 선형 방식: 변압기→정류기→평활 회로→정전압 소자 순으로 안정된 직류를 만든다
 ③ 선형 방식은 간단하나 전력 손실·발열이 크고 낮은 주파수 탓에 크기가 크다
 ④ 스위칭 방식: 정류·평활 후 스위치로 변화가 심한 전압을 만들어 변압기에 넣는다
 ⑤ 온오프비로 출력 전압을 조절하고, 비교 회로로 기준 전압에 맞추나 노이즈가 남는다

- 1 O 선형 방식의 정전압 소자는 출력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력을 열로 소모한다.
 → ② '5 V 정전압 소자에 ... 9 V 전압이 들어오면, 4 V에 해당하는 전력을 열로 소모'
- 2 X 선형 방식에서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커진다.
 → ③ '입력 전압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압기의 크기가 커서'
- 3 X 스위칭 방식에서는 정류기와 평활 회로를 거친 전압을 그대로 변압기에 넣어도 출력 측에 충분한 전압이 발생한다.
 → ④ 변화가 적어 '변압기의 출력 측에 전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위치로 변화가 심한 전압으로 바꿈
- 4 O 스위칭 방식에서 한 주기 내 온 되어 있는 시간의 비율이 커지면 변압기의 출력 전압이 높아진다.
 → ④ '그 비율이 커지면 출력 전압이 높아지고, 비율이 작아지면 전압이 낮아진다'
- 5 X 스위칭 방식은 정전압 소자를 사용하여 최종 출력 전압을 기준 전압과 같게 만든다.
 → ④ '정전압 소자를 사용하는 대신 스위치를 제어'하며, 비교 회로가 기준 전압과 비교해 온·오프 신호를 생성

DAY 11

지문 1 / 2

인문·철학

2026년 3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호네프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적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목적적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며, ‘주격 나’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자아이다. ‘주격 나’가 ‘목적적 나’를 받아들이면 개인은 ‘목적적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하는 경우 개인은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대안적 정체성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하기도 하는데, 정체성의 인정을 위한 이러한 저항을 인정 투쟁이라 한다. 인정 투쟁의 성공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며, 호네프는 사회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프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수행성의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수행성이란 수행에 의해 대상이 구성되는 성질이다. 규범이 수행성을 지녔다는 것은 수행이 규범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임을 뜻한다.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그 역시 수행

성을 지닌다. 개인은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면서, 규범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버틀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개인이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 투쟁으로서의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 이때 인정 투쟁은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규범을 주도하는 권력이나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차이를 내세우며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정 투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정 투쟁의 성공은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는 이러한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인정 투쟁의 주체는 규범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할 때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

DAY 11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호네트에 따르면 '주격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다. | O | X |
| 2 | 호네트는 인정 투쟁이 성공하면 규범이 변화하고 대안적 정체성이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 O | X |
| 3 |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 O | X |
| 4 | 버틀러에 따르면 인정 투쟁은 규범이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O | X |
| 5 | 버틀러는 인정 투쟁이 성공하면 기존의 배제가 완전히 해체된다고 보았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1

지문 2 / 2

인문·철학

2026년 5월 고3 학력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러셀은 세계를 객관적 실재로 이해했다. 러셀에 따르면 명제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러셀은 명제가 그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명제가 세계와 대응되면 그 명제는 참이며 명제가 세계와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하였다. 러셀은 과학이나 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도, 명제로 표현된 것과 세계와의 대응 여부로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평가 방식을 지닌다고 보았다.

러셀은 명제를 분석해 세계와의 대응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세계와의 대응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명제에 있는 여러 사실들의 관계를 세계의 사실 관계와 일치하게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은 참이다. 러셀은 세계에 대한 앎인 지식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

사물에 대한 지식은 세계에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러셀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다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과, 기술에 의한 지식으로 구분한다. 이때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에 대한 지식이 대표적인데, ‘장미’와 같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물론, ‘봄’ 같은 속성이나 ‘다양성’ 같은 관념 등도 직접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 러셀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한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으로 보았다. 러셀은 명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장 확실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기술에 의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에 의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 기술은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다. 기술에 의한 지식은 그 기술에 부합하는 대상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에서부터 추론해 아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인식에 기반하며, 우리의 지식이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술에 의한 지식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과 달리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도 명제의 분석을 통해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령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보면 프랑스는 현재 군주제가 아니므로 ‘현재 프랑스의 왕’이라는 기술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다. 이럴 경우, 러셀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되면 명제 자체가 거짓이라고 봄으로써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리오타르는 세계가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세계를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으로 이해하였다. 리오타르는 절대적 원리나 권위에 의해 진리가 정당화되는 것을 부정하며, 어떤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리오타르는 언어에 주목하여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리오타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언어 게임이라고 하였다. 이는 게임마다 임의로 만들어지는 고유의 규칙이 있듯이,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자들의 암묵적 계약에 의한 고유의 규칙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어는 그 사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언어 게임은 과학적 언어 게임, 윤리적 언어 게임 등 그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리오타르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는 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공약불가능성이란 공통적인 척도로 묶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언어 게임은 공통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상호 비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리오타르는 언어 게임 간의 이질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언어 게임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문장 우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문장 우주 안에는 발신자, 수신자, 지시되는 대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장 우주는 다의성을 지닌다. 가령 ‘정의’라는 언어 기호는 발신자, 수신자가 누구이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리오타르의 시각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문장 우주 안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오타르는 각기 다른 언어 게임에 속한 지식들이 공통된 기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한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다른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식에는 대표적으로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있다. 서사적 지식은 신화를 통해 자연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 등을 이르고, 과학적 지식은 증명을 통해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지식을 이른다. 이때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각 지식이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른다. 이는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DAY 11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러셀은 과학과 윤리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참과 거짓을 평가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 O | X |
| 2 | 러셀에 따르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 O | X |
| 3 | 러셀은 기술에 의한 지식이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보다 더 확실하고 기초적이라고 보았다. | O | X |
| 4 |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O | X |
| 5 | 리오타르는 이질적인 언어 게임 사이에는 공통된 기준이 없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1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호네프와 버틀러 인정론

2026년 3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호네프는 규범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정체성과 인정 투쟁을 통한 사회 발전을 주장하고, 버틀러는 수행성 개념으로 이를 비판하며 인정과 배제의 순환을 넘어서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적격 나 → 인정 투쟁 → 수행성 → 배제 → 상호 인정

- ① 호네프: 정체성은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으로 형성되고 인정이 필요하다
 ② '주격 나'가 반발하면 대안적 정체성이 생기고, 인정 투쟁이 규범 변화로 이어진다
 ③ 버틀러: 규범은 고정 실체가 아니라 수행의 반복으로 형성·소멸하는 유동적인 것
 ④ 수행적 반복은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아 배제를 느낄 때 생존의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
 ⑤ 인정 투쟁의 성공도 또 다른 배제를 남기므로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 1 X 호네프에 따르면 '주격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다.
 → ① 규범이 요구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는 '목적격 나'. '주격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자아
- 2 O 호네프는 인정 투쟁이 성공하면 규범이 변화하고 대안적 정체성이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 ② '인정 투쟁의 성공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며 ... 사회의 발전이 ... 일어난다'
- 3 X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 ③ 버틀러는 이 호네프의 주장을 비판. 규범은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
- 4 O 버틀러에 따르면 인정 투쟁은 규범이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④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 5 X 버틀러는 인정 투쟁이 성공하면 기존의 배제가 완전히 해체된다고 보았다.
 → ⑤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지문 2 러셀과 리오타르 지식관

2026년 5월 고3 학력평가 4~9번

러셀은 명제와 세계의 대응으로 참을 판별하는 보편적 지식관을, 리오타르는 언어 게임 간 공약불가능성을 근거로 지식의 이질성을 인정하는 다원적 지식관을 제시했다.

대응설 → 사물·진리 지식 → 직접·기술 지식 → 언어 게임 → 공약불가능성 → 지식의 대응

- (가)① 러셀: 명제가 세계와 대응하면 참, 아니면 거짓이며 모든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
 (가)②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뉘며, 전자는 후자에 기반
 (가)③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대상을 대면해 얻는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
 (가)④ 기술에 의한 지식은 간접 인식으로 경험의 한계를 넘고 타인에게 전달 가능
 (가)⑤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는 그 자체로 거짓이라 보아 참·거짓 결정
 (나)① 리오타르: 세계는 이질적 언어 게임의 공존 장이며 보편 체계로 설명 불가
 (나)② 언어 게임 간에는 공약불가능성이 있어 비교·합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나)③ 문장 우주의 네 요소가 고정되지 않아 다의성을 지니므로 합의는 더욱 불가능
 (나)④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각자의 규칙을 따르며 어느 쪽도 우선할 수 없음

- 1 X 러셀은 과학과 윤리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참과 거짓을 평가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 과학·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도 세계와의 대응 여부로 참·거짓을 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평가 방식'을 지닌다고 봄.
- 2 O 러셀에 따르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
- 3 X 러셀은 기술에 의한 지식이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보다 더 확실하고 기초적이라고 보았다.
 →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이며, 기술에 의한 지식은 직접적 인식에 기반함.
- 4 X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 자체가 '거짓'이라고 봄으로써 참·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함.
- 5 O 리오타르는 이질적인 언어 게임 사이에는 공통된 기준이 없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상호 비교할 수 없다... 합의를 이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DAY 12

지문 1 / 2

인문·역사

2026년 6월 고3 모의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 받았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 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정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이익(李瀾)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民)에 주목하였다.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DAY 12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양반들은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신분 질서 자체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 | O | X |
| 2 | 이익은 이전 학자들처럼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하였다. | O | X |
| 3 | 이익은 국가가 개인의 삶의 변화 결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 O | X |
| 4 | 유길준은 민에게 천부 인권과 인위적 권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민을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 O | X |
| 5 |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제상 폐지되면서 노비와 사회적 차별은 곧바로 사라졌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2

지문 2 / 2

사회·경제

2026년 6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실명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과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DAY 12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O	X
2	현행 법률 조항은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O	X
3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표현의 진위나 가치를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O	X
4	비판론은 유해·불법 정보를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삭제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의 조치를 사후에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O	X
5	실명확인사건에서 헌법 재판소의 소수 의견은 허위·왜곡 정보가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2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조선 후기 이후 노비관

2026년 6월 고3 모의평가 4~9번

조선 후기 양반과 이익의 노비관, 그리고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민권 논의와 형평 운동을 통해 신분 차별 극복의 흐름을 살핀다.

양반의 운정 → 이익의 조명 → 개화파 민권 → 신분제 폐지 → 형평 운동

- (가)① 노비 수 감소와 신분 격차 축소로 인식이 변해 양반들의 노비 관련 글이 등장
 (가)② 양반들은 노비를 칭송·애도했으나 온정적 시선에 그치고 신분 질서는 문제 삼지 않음
 (가)③ 이익은 운명을 천명·성명·조명으로 나누고 조명의 대상을 노비 포함 모두로 확대
 (가)④ 이익: 신분은 재주·덕행에 따라야 하며 매매·세습 금지로 노비가 사라질 것이라 주장
 (나)① 유길준은 근대 법률로 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민을 교육이 필요한 무지한 존재로 봄
 (나)② 박영효는 민권 없이는 국권도 위태로우며 민의 자유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봄
 (나)③ 온건 개화파는 노비 세습 금지를 지지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
 (나)④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 뒤에도 차별이 남아 독립 협회가 노비 소유·매매를 비판
 (나)⑤ 형평 운동은 백정의 인권·평등을 추구하다 위축됐으나 이후 인권 운동에 영향

- 1 O 양반들은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신분 질서 자체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
 →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 2 X 이익은 이전 학자들처럼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하였다.
 → 이전 학자들과 달리 조명의 대상을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함.
- 3 X 이익은 국가가 개인의 삶의 변화 결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하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 봄.
- 4 O 유길준은 민에게 천부 인권과 인위적 권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민을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 천부 인권과 인위적 권리를 말했지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존재로 간주.
- 5 X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제상 폐지되면서 노비와 사회적 차별은 곧바로 사라졌다.
 → 신분제 폐지 조치에도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지문 2 정보 비대칭과 규제

2026년 6월 고3 모의평가 10~13번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두고,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과 그 비판론이 온라인 표현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정보 비대칭 → 역선택 → 생성물 표시 → 사상의 자유 시장 → 비판론 → 실명확인사건

- ①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 문제를 낳아 정부가 법에 근거해 정보 제공을 강제하며 개입
 ② 온라인에서도 생성형 AI 허위 광고로 정보 비대칭이 생겨 정부 개입 범위를 두고 논쟁
 ③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표현의 진위·가치는 의견 경쟁으로 정해야 하며 정부 개입 반대
 ④ 비판론: 허위 정보 범람 시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 강화 필요
 ⑤ 실명확인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위헌, 소수 의견은 비판론 취지로 엇갈림

- 1 O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 정보를 적게 가진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
- 2 X 현행 법률 조항은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의무는 AI 활용 제품·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정보 제공자·플랫폼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주장이 제기'되는 단계임.
- 3 O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표현의 진위나 가치를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 4 X 비판론은 유해·불법 정보를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삭제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의 조치를 사후에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 순서가 반대: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
- 5 O 실명확인사건에서 헌법 재판소의 소수 의견은 허위·왜곡 정보가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

DAY 13

지문 1 / 2

사회·사회학

2026년 7월 고3 학력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사회학에서는 구조를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외적 제약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인간 행위의 반복이 구조를 형성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기든스는 두 입장이 각각 행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거나, 제도화된 거대 구조의 강제력을 간과하는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지적하며 구조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구조화 이론에서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물이며, 인간은 이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규칙은 개인의 발화를 제한하는 외적 제약이지만,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매개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언어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 표현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단순히 기존 구조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는 점을 의미하며, 기든스는 이러한 개인의 행위를 ‘성찰적 실천’이라고 불렀다. 그는 성찰적 실천에 의해 사회체계가 유지되거나, 변형되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든스는 사회체계가 재생산이 되려면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추상적 시스템’은 타인과 직접적 접촉 없이도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적 표상과 전문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적 표상이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화폐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전문가 체계는 의료 체계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운용 체계를 의미한다. 기든스는 물물 교환처럼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던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화폐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시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낮은 환경과 타인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불안과 불확실성은 전문가 체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맺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추상적 시스템은 개인의 행위를 지속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개인의 행위는 사회체계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든스의 입장이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제공되고, 변화의 방향성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구조화

이론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성찰적 실천을 통해 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사회체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과학의 발달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로 인해 자연에 대한 통제와 생산성 증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상품 생산은 기후 위기나 방사능 오염과 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도 초래하였다.

올리히 벡은 산업 사회가 초래한 위험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

하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산업화의 부산물로, 자연재해와 달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한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벡은 이처럼 사회 운영의 중심축이 ‘부의 생산’에서 ‘위험의 관리’로 이동한 상태, 즉 안전과 생존이 사회적 화두가 된 상태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했다.

벡은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능력은 개인의 경제적 여력과 직업, 교육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듯이 위험 또한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됨을 지적하며, 위험사회에서는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을 넘어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벡은 위험사회에서 과학과 전문가의 권위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과학이 위험의 생산에 관여하면서도 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학은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독점적 권한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지식에 기반했던 전문가의 권위 역시 해체되며,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전문가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정치’ 중심의 다층적 체계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위험사회 속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기존의 사회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벡은 ‘성찰적 근대성’이라 불렀다. 벡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성은 위험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DAY 13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기든스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는 매개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 O | X |
| 2 | 기든스에 따르면 상징적 표상은 의료 체계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운용 체계를 말한다. | O | X |
| 3 | 기든스는 낯선 환경에서 생기는 불안이 전문가 체계에 대한 믿음으로 해소되어 사회적 관계 맺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 O | X |
| 4 | 벡은 산업화로 생긴 위험이 자연재해처럼 현대 과학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O | X |
| 5 | 벡은 위험사회에서 위험이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분배된다고 보았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3 지문 2 / 2

사회·경제

2026년 7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일반적인 펀드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이를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이다. 다수의 ETF는 KOSPI 200*과 같이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는데, 이때 ETF 증권 1주를 매수하는 것은 그 지수에 포함된 여러 기업의 주식을 기초 지수의 구성 비율만큼 나누어 모두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ETF는 소액으로도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환금성을 지닌다.

ETF 증권의 본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장이 마감된 후, 하루에 한 번 산출되는 순자산가치가 있다. 순자산가치는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를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값을 총발행 증권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그러나 ETF 증권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가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가 함께 제공된다. 한편, ETF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사고팔리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 하는데, 이는 투자자의 매수·매도 수요에 따라 형성되므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와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장중 괴리율은 ETF 증권의 시장 가격에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를 뺀 값을,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로 나눈 뒤 백분율로 나타낸다. 괴리율의 절댓값이 크다는 것은 ETF 증권이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가 ETF 증권을 매수·매도할 때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괴리율은 유동성 공급자가 차익 거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축소된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ETF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괴리율을 활용해 차익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자산 운용사와의 거래를 통해 ETF의 설정과 환매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서 설정이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기초 자산 바스켓*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ETF 증권을 새로 발행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반대로 환매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 자산 바스켓을 다시 지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괴리율이 양수일 때, 설정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는 확보한 ETF 증권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반대로 괴리율이 음수일 경우에는, 환매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가 확

보한 기초 자산 바스켓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차익 거래는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을 다시 본질 가치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한다.

ETF는 추구하는 수익률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에 따라 패시브형 ETF와 액티브형 ETF로 구분하는데, 이들은 기초 지수와 상관 계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상관 계수란 ETF의 수익률이 기초 지수의 움직임과 얼마나 유사하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기초 지수와 유사

하게 움직임을 뜻한다. 패시브형 ETF는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상관 계수를 0.9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는 반면, 액티브형 ETF는 상관 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종목을 운용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별도의 금융 계약을 결합하여 수익 구조를 특수하게 설계한 ETF도 있다. 레버리지형 ETF는 기초 지수의 일별 수익률에 2배나 3배 등 일정 배율을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활용하여 지수 변동 폭을 확대해 추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초 지수가 하락할 경우 자산 손실 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따른다. 왜냐하면 당일의 수익률이 반영된 자산 가치, 즉 평가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 다음 날 수익률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ETF의 특성상, 배율이 확대되어 적용되면 기초 지수가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여 하락 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 지수가 100이고 투자 원금이 10,000원일 때, 기초 지수가 80으로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에서는 원금이 40% 감소하여 6,000원이 된다. 다음 날 기초 지수가 25% 상승하여 다시 100이 되더라도 평가액은 지수 상승 폭의 2배가 반영된 9,000원에 그치게 된다. 또한 커버드콜형 ETF는 증권을 보유하며 증권의 가격 흐름을 따라가는 동시에, 특정 가격에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전략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가 상승 전에 미리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 실현은 제한되지만,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의 위험, 운용 방식, 그리고 유형별 고유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KOSPI 200 : 한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우량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

* 기초 자산 바스켓 : ETF를 구성하는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묶음.

DAY 13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ETF는 일반적인 펀드의 낮은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에 상장되어 개별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O	X
2	과리울의 절댓값이 클수록 투자자가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진다.	O	X
3	과리울이 양수일 때에는 환매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가 기초 자산 바스켓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다.	O	X
4	액티브형 ETF는 패시브형 ETF보다 기초 지수와 의 상관 계수를 더 높게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O	X
5	커버드콜형 ETF는 증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모두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3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구조화 이론과 위험사회

2026년 7월 고3 학력평가 4~9번

기든스는 구조와 행위를 통한 구조화 이론으로 성찰적 실천을, 벡은 위험사회론으로 성찰적 근대성을 제시하여 현대인의 주체적 대응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구조화 이론 → 성찰적 실천 → 추상적 시스템 → 위험사회 → 하위정치 → 성찰적 근대성

- (가)① 구조와 행위의 이분법을 비판한 기든스가 구조화 이론을 제시
 (가)② 구조는 행위의 제약이자 매개이며, 인간은 성찰적 실천으로 사회체계를 재생산
 (가)③ 추상적 시스템(상징적 표상·전문가 체계)이 행위를 지속시켜 사회체계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
 (가)④ 구조화 이론은 불확실한 시대에도 인간이 구조를 재구성하는 주체임을 보여 줌
 (나)① 산업 사회의 생산성 증대는 기후 위기·방사능 오염 같은 위험도 초래
 (나)② 벡: 사회의 중심축이 부의 생산에서 위험의 관리로 이동한 상태가 위험사회
 (나)③ 위험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위험 회피 능력이 계층 기준이 됨
 (나)④ 과학·전문가의 권위가 해체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하위정치 중심 체계로 전환
 (나)⑤ 기존 구조를 점검·재구성하는 성찰적 근대성이 위험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

- 1 O 기든스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는 매개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봄.
- 2 X 기든스에 따르면 상징적 표상은 의료 체계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운용 체계를 말한다.
 → 상징적 표상은 화폐처럼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물이고, 의료 체계 같은 것은 '전문가 체계'임.
- 3 O 기든스는 낯선 환경에서 생기는 불안이 전문가 체계에 대한 믿음으로 해소되어 사회적 관계 맺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불안과 불확실성은 '전문가 체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어 관계 맺기가 지속됨.
- 4 X 벡은 산업화로 생긴 위험이 자연재해처럼 현대 과학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산업화의 위험은 '자연재해와 달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한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고 봄.
- 5 X 벡은 위험사회에서 위험이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분배된다고 보았다.
 →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기 위험 또한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지적.

지문 2 ETF의 구조와 유형

2026년 7월 고3 학력평가 14~17번

ETF는 분산 투자 효과와 높은 환금성을 지닌 상장 펀드로, 유동성 공급자의 차익 거래로 괴리율이 줄어들며, 운용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과 고유한 위험을 지닌다.

ETF → 순자산가치 → 괴리율 → 차익 거래 → 패시브·액티브 → 레버리지·커버드콜

- ① ETF는 펀드를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하게 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와 높은 환금성을 제공
 ② 본질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나타내며, 시장 가격과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괴리율로 나타냄
 ③ 유동성 공급자는 설정·환매를 이용한 차익 거래로 괴리율을 축소함
 ④ 상관 계수에 따라 0.9 이상 패시브형, 0.7 이상에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액티브형으로 구분
 ⑤ 레버리지형은 변동 폭을 배율로 키우나 지수가 회복해도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음
 ⑥ 커버드콜형은 상승 수익이 제한되지만 주기적 현금 수익을 확보하며, 위험을 종합 고려해야 함

- 1 O ETF는 일반적인 펀드의 낮은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에 상장되어 개별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 일반 펀드는 '환금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려 ETF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함.
- 2 O 괴리율의 절댓값이 클수록 투자자가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진다.
 → 괴리율 절댓값이 크면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 3 X 괴리율이 양수일 때에는 환매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가 기초 자산 바스켓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다.
 → 양수일 때는 '설정'에 참여해 확보한 ETF 증권을 매도함. 환매 후 바스켓 매도는 괴리율이 '음수'일 때.
- 4 X 액티브형 ETF는 패시브형 ETF보다 기초 지수와의 상관 계수를 더 높게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 패시브형은 0.9 이상, 액티브형은 0.7 이상을 기준으로 함. 기초 지수를 더 가깝게 따르는 쪽은 패시브형.
- 5 X 커버드콜형 ETF는 증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모두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권리를 미리 판매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 실현은 제한'되며, 장점은 '주기적인 현금 수익'.

DAY 14 지문 1 / 2

인문·윤리

2026년 9월 고3 모의평가 4~9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할까? 이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에 반해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은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종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흔히 인간은 다른 종에는 없는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면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기 어렵고,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종 차별주의는 우리가 다른 종과 달리 인간 종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종보다 인간 종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옹호되기도 한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이나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 종 전체에서의 유대감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간이 같은 집단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은 혈연 등으로 연결된 소규모 인간 집단 내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를 벗어나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다. 어떤 현상을 있는 대로 기술한 사실을 전제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 원칙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인간 중심적 종 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종적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춘 도덕적 행위자라는 인간의 특징을 방어벽으로 내세웠다. 전통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의 종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는 도덕적 행위의 원천인 ‘행위자’의 범주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 ‘피행위자’의 범주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표준적 입장]이 있다.

하지만 전통적 윤리의 관점과 달리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을 인공 행위자이자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로 윤리적 행동주의가 있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서로 다른 두 실체 사이의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형이상학적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속성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대신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적 지위의 판단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에 근거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그 인공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존슨은 인식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탈형이상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윤리적 행동주의가 곧장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독립성 논변’을 제시한다. 이는 인공 행위자 X가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X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실체 Y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미즈는 다른 실체 간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의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실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실체의 행동으로부터 그 지위를 정당화하는 형이상학적 속성으로의 추론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는 인공 지능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다.

DAY 14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종 차별주의에 따르면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이 옳지 않은 이유는 동물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O	X
2	고차원적 정신 능력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정신 능력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 대우하는 것도 정당화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O	X
3	글쓴이는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인간 종을 우대해야 한다는 규범 원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O	X
4	윤리적 행동주의는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으로 도덕적 지위를 추론한다.	O	X
5	스미즈는 실재 간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본질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4

지문 2 / 2

사회·경영

2026년 9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지,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지,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지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가 기업 같은 정형적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관계에 주목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관한 연구와 같이 비정형적 환경의 리더에 주목하는 접근도 있다. 오피니언 리더는 미디어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20세기 중반, 주류 미디어인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해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연구하던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은 뜻밖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에서 비롯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되어 원자화된 존재로 파악한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을

벗어나 가족, 친구와 같은 1차적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했다. 또한 미디어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을 위축시켰고, 이를 계기로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오피니언 리더는 자신이 정보 제공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선구자,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인 관계의 중심에 선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의 정보 선택을 돕고 인터넷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공론장으로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커졌다. 이들은 일반 이용자보다 뉴스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신문, 텔레비전 등의 이용 동기도 높고 실제로 이들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기반 정보 제공자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정보를 창출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에 대한 비판론은, 이 이론이 일반 이용자가 오피니언 리더의 개입 없이도 미디어에서 정보를 직접 획득한다는 점과, 정보 수용 방식에 있어 항상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한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나온 정보의 흐름은 2단계 외에 1단계로, 또는 3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 되는 다단계로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론의 취지를 수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DAY 14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라자스펠트와 동료들은 선거 캠페인 연구에서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	☐
2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된 원자화된 존재로 본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에서 벗어났다.	☐	☐
3	2단계 유통 이론은 미디어가 이용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을 강화하였다.	☐	☐
4	오피니언 리더는 일반 이용자보다 미디어 이용 동기가 높고 실제로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	☐
5	비판론은 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가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이 이론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4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종 차별주의와 AI

2026년 9월 고3 모의평가 4~9번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들의 한계를 검토하고, 인공 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려는 윤리적 행동주의와 이에 대한 반론을 살핀다.

종 차별주의 → 정신 능력 → 유대감 → 도덕적 행위자 → 윤리적 행동주의 → 반론

- (가)① 종 차별주의는 인간만 그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다른 종은 관계로만 고려된다고 봄
 (가)② 고차원적 정신 능력 근거는 능력 없는 사람 배제·영장류 포함·인간 차등의 문제를 남음
 (가)③ 인간 종 전체 유대감은 확인하기 어렵고, 사실로부터 규범 원칙을 끌어낼 수 없음
 (나)① 전통 윤리는 인간만 도덕적 행위자로 보며, 행위자와 피행위자 범주의 일치를 전제
 (나)② 윤리적 행동주의: 행동의 동등성을 근거로 인공 행위자에게 도덕적 지위 부여 가능
 (나)③ 존슨의 독립성 논변과 스미즈의 형이상학적 속성 추론 요구로 종 차별주의는 약화되지 않음

- 1 X 종 차별주의에 따르면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이 옳지 않은 이유는 동물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 다른 종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고려되므로, 잔인한 행동은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봄.
- 2 O 고차원적 정신 능력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정신 능력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 대우하는 것도 정당화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 3 X 글쓴이는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인간 종을 우대해야 한다는 규범 원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유대감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다'. 사실을 전제로 보편적 규범 원칙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음'.
- 4 O 윤리적 행동주의는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으로 도덕적 지위를 추론한다.
 → 도덕적 지위는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추론'함.
- 5 X 스미즈는 실재 간 행동의 동등성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본질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 행동의 동등성은 '인식론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

지문 2 오피니언 리더 이론

2026년 9월 고3 모의평가 14~17번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을 핵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의 형성과 의의, 오늘날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비판론을 설명한다.

오피니언 리더 → 2단계 유통 → 대인 커뮤니케이션 → 제한 효과 → 비판론

- ① 리더 연구 중 비정형적 환경에 주목하는 오피니언 리더 연구가 있음
 ② 라자스펠트 등은 미디어 영향력이 미미함을 발견하고 2단계 유통 이론을 정립
 ③ 이 이론은 1차 집단 유대에 주목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영역을 넓히고 제한 효과론을 부상시킴
 ④ 오피니언 리더는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며 오늘날 정보를 직접 창출해 제공하기도 함
 ⑤ 비판론: 직접 정보 획득·능동적 수용·분야별 위치 변화·1단계와 다단계 흐름을 간과

- 1 X 라자스펠트와 동료들은 선거 캠페인 연구에서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였던 것이다.'
- 2 O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된 원자화된 존재로 본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에서 벗어났다.
 →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을 '벗어나' 가족, 친구 같은 1차적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에 주목함.
- 3 X 2단계 유통 이론은 미디어가 이용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을 강화하였다.
 → 그 입장을 '위축시켰고'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함.
- 4 O 오피니언 리더는 일반 이용자보다 미디어 이용 동기가 높고 실제로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 '일반 이용자보다... 이용 동기도 높고 실제로 이들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 5 O 비판론은 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가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이 이론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한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